

Linguistic Research on *Honamga* (*Cheonggye* Version)*

Heuiha S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namga* (*Cheonggye* version) linguistically. This study method was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including comparison and contrast with other major *Honamga* version. We are to analyze and consider *Honamga* (*Cheonggye* version) in the linguist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bibliographic research, spellings, and dialects. *Honamga* (*Cheonggye* version) is a manuscript transcribed in 1911 by *Park Gyeongrim*, who lived in *Gochang*. *Yeoncheol*, *jungcheol* and *buncheol* writings are appeared. It is commonly found in literature from modern Korean, and appeared in the southwestern dialect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modern and recent Korean, such as the semi-vowel ‘|’ appearing significantly after ‘入, ㅈ, ㅊ’. The most prominent phonological phenomena are frontal vowelization, upper vowelization, palatalization, syllable contraction, ‘ㅓ’ dropping and rounded vowelization. In general, it shows characteristics commonly seen in the southwestern dialects of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modern and rec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Korean linguistic study on *Honamga* (*Cheonggye* version) and that it examines the language aspects of that time and the southwestern dialect materials. We hope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revitalizing research on Korean language history and dialect.

Key Words: *Honamga* (*Cheonggye* Version), *Danga* (Short Song), *Saseol* (Song Story), *Shin Jaehyo*, *Park Gyeongrim*

□ 접수일: 2024년 3월 23일, 수정일: 2024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8일

* 이 논문은 호남가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와 광주문화발전소가 주최한 <호남가 학술대회>(2022. 10. 28.) 토론문 중 ‘청계본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 소개 일부와 호남가의 방언’을 읽고 더하여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인문사회콘텐츠학회/인문사회21/K교육연구학회 2024년 춘계공동학술대회(2024. 4. 6. (토) 12:30-16:50, 진도 쏠비치리조트 소강당)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Chonnam National Univ., Email: shh@jnu.ac.kr)

I. 서론

‘호남가(청계본 淸溪本)’은 신재효(1812-1884) 판소리 사설본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으로 ‘호남가’ 사설의 하나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로, 현재는 고창판소리박물관이 위탁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다.¹⁾

김종철(2021: 134-142)에 따르면 청계본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은 『가람일기』(1932년 8월 17일) 등에 의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 평지리 청계 마을의 박헌옥(朴憲玉) 씨 소장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동안 실물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 2일 원 소장자로 알려진 박헌옥 씨의 장손 박종옥 씨가 이를 온전히 보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²⁾ 가람 이병기, 김삼불 등이 조사하고 연구에서 말한 적이 있는 바로 그 문헌이다.

이 문헌은 전북 고창 지역의 당시 국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런 점에서 국어학적 연구 가치와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다.³⁾

이 연구는 호남가(청계본)의 언어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호남가 이본 중 하나인 청계본의 판본을 먼저 살펴본 다음, 여기에 나오는 호남가 가사의 표기법을 살펴보고, 가사에 나타난 언어의 특징과 특이 방언을 분석하고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호남가(청계본)의 판본

‘호남가(청계본)’은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중 『성조가(成造歌)』 속에 들어 있다. 박헌옥 씨의 부친 박경림(朴炯林, 1864-1932) 씨가 1911년(신해)에 필사한 책이다. 『성조가』의 판본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문헌은 필사본으로 1책 17장이다. 표지는 낡고 헤졌으며 종이 먹은 부분도 있는데, 제침 없이 “成造歌抄”라고 써 놓았다. 크기는 가로가 18.2센티미터, 세로가 12.2-12.3센티미터로 가로가 더 길다.⁴⁾ 4침 안정법의 선장인데,

1) 김종철(2021: 134)에 따르면 ‘청계본’이란 명칭은 김삼불이 붙인 것으로 소장처 청계동에서 따온 것이다.

2) ‘청계본’의 발견 경위와 자세한 서지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철(2021)을 참조하길 바람.

3) 다만 호남가노래비전립추진위원회와 광주문화발전소가 주최한 <호남가 학술대회>(2022. 10. 28.)에서 필자가 토론하면서 ‘호남가의 방언’을 다룬 적이 있을 뿐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유행을 보여 준다. 지질은 한지이다. 1면은 10줄이며, 1줄은 15자 내외이다.⁵⁾ 국한문을 섞어 썼으며, 세로글씨체로 되어 있다. 끊어 읽는 부분에 적색 화두점을 찍어 놓았다. 책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다. 앞표지 다음 장 앞면에 “庚戌六月日”, “要鑑記”라고 써 놓았으며, “朴垞林信”, “朴處五信”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앞뒤 표지 안쪽면에는 약방문을 적어 놓았다.

“成造歌라” 본문이 끝나는 제9장 앞면에 “歲在 辛亥 杞洞 新抄”, “成造歌 終抄”라고 적혀 있고, 등근 장서인 “朴處五信”이 찍혀 있는데, “辛亥”는 필사 시기로 보인다.⁶⁾

이 문헌은 다음과 같은 내용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 | |
|----------------|----------------|
| 1. <成造歌라> 17면 | 2. <湖南歌> 3면 |
| 3. <방앗타령이라> 2면 | 4. <葛處士十步歌> 7면 |

이중 ‘호남가(청계본)’ (이하 ‘호남가’)는 제목 1줄을 포함하여 30줄을 3면에 걸쳐 필사하여 놓았다.

호남가 가사 표기에는 수정한 곳이 여럿 보이며, 오자로 보이는 부분도 보인다.⁷⁾

수정한 부분과 오자 등은 다른 이본을 필사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⁸⁾ 이로 미루어 볼 때에 청계본은 신재효가 직접 쓴 사설을 베꼈거나 신재효가 직접 쓴 사설을 베낀 다른 이본을 베낀 것으로 보인다. 오자로 보이는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泰仁 ㅎ신 우리선군[성군]⁹⁾

남세인심 淳昌 ㅎ니

구연하는 창이나 이본과 비교할 때에 위 “泰仁 ㅎ신 우리선군”은 “泰仁 ㅎ신 우리성군”,

4) 김종철(2021: 163)에는 “가로 180cm, 세로 122cm”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cm’는 ‘mm’의 오류로 보인다. ‘mm’로 볼 때에 2024년 4월 3일 필자가 실제 쟀 것과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

5) 1줄에 6-17자를 적었는데,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15자가 17줄로 압도적이다, 김종철(2021: 163)에서는 1행 14자 내외라고 하고 있는데, 수정해야 할 것이다.

글자 수	줄 수	글자 수	줄 수	글자 수	줄 수
6	1	13	1	14	3
15	17	16	6	17	1

6) 장서인의 지름은 상하 1.4센티미터, 좌우 1.5센티미터이다.

7) “淳昌 ㅎ니”는 처음에 “順天 ㅎ니”로 적었다가 후에 정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수정한 부분이 여럿 보인다.

8) 노래로 부르던 것을 적은 것이어서 와음이나 오자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9) 청계본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구절의 시작마다 붉은 점으로 끊는 표시를 하고 있다. 붉은 점 대신에 끊어 적는다.

“남세인심 淳昌 ㅎ니”는 “남세인심 淳昌 ㅎ니”의 오자로 보인다. 전자는 임방울 창 콜럼비아(1929), 오케(1933), 국악원(1956)에는 “타인하신 우리 성군”으로, 후자는 임방울 창 국악원(1956)에는 “남세인심 순창하니”로 들린다. 또 전자는 새터본(고창판소리박물관, 2023: 325)에는 동일하게 “泰仁 ㅎ신 우리선군”으로 나오며, 가람본(신오위장본집4, 33장 앞, 고창군판소리박물관, 2023: 450)에는 “틱인(泰仁) ㅎ신 우리성군”으로 나와 있다.¹⁰⁾ 후자는 새터본(고창판소리박물관, 2023: 324)에는 동일하게 “남세인심 淳昌 ㅎ니”로 나오며, 가람본(신오위장본집4, 33장 뒤, 고창군판소리박물관, 2023: 449)에는 “남세納稅인심人心 순창淳昌 ㅎ니”로 나와 있다. 신씨가본(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1969)에도 “우리성군”, “남세인심”으로 나와 있다.¹¹⁾

‘호남가’를 다른 필사본과 비교해서 차이를 살펴 보기로 한다. 김종철(2021: 164)에서는 청계본과 새터본을 대조하여 차이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靈岩에 돌너잇고(청계):靈光에 돌너잇고(연세)
 泰仁 ㅎ신 우리선군(청계):泰仁 ㅎ신 우리성군(연세)
 綾州에 불근 꽃선(청계):綾州에 불근 꽃설(연세)
 곳 ㅁ 마다 錦山이라(청계):곳 ㅁ 마다 錦山이라(연세)
 臨陂上에 누어우나(청계):臨陂엔 누어우나(연세)

필자가 면밀히 대조한 결과 위의 것 외에도 다음 부분도 차이가 있다.

礪山石에 칼들가라(청계):礪山石에 칼들가라(연세)
 南平樓에 꼬즈신이(청계):南平樓에 꼬즈신이(연세)
 높고가기를 질거할야(청계):높고가기를 질거할야(연세)

또 한자의 자체에서도 정자 약자 등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漁舟(청계):漁船(연세)	寶城(청계):宝城(연세)
靈岩(청계):靈光(연세)	順天(청계):順天(연세)
層 ㅁ (청계):층 ㅁ (연세)	龍安處(청계):龍安處(연세)
任實(청계):任夷(연세)	靈光(청계):靈光(연세)
農事(청계):農事(연세)	求禮(청계):求禮(연세)

10) 가람본은 세로글씨체 한글본으로 우측에 한자를 병기해 놓았다.

11) 가람본, 새터본 또한 마찬가지로 줄글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는 이의 편의를 위하여 띄어 적기로 한다.

Ⅲ. 표기와 방언

이 장에서는 ‘호남가(청계본)’ 가사 표기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기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표기

1) 연철

호남가 가사 표기는 현대식 표기와는 달리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한 음절씩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연철 표기는 중세 국어 시기의 표기법의 전통을 그대로 이은 것이다.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¹²⁾

늘근몸이(늡은 몸이)	비러트고(빌어 트고)
도든히는(돋은 히는)	홀노안져(홀로 얹여)
뇌피소스(뇌이 솟으)	구부궤궤(굽우궤궤)
말근물은(맑은 물은)	불근췌션(붉은 췌연)
茂長호익(茂長호익)	췌호션上(췌은 世上)
일스문이(일습우니)	금을이러(금을 일어)
누어췌나(누엇구나)	무친션빅(문힌 셴빅)
구든法聖(굳은 法聖)	도라논티(돌아논티)
꼬췌션이(꼰웃이니)	

이처럼 호남가 가사 표기는 소리나는 대로 연철하여 적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고유어 표기에만 나타난다.

2) 분철

호남가 가사 표기에는 형태를 밝혀 적는 분철 표기가 일부 나타난다.

분철은 한자어와 조사, 한자어와 어미 연결 표기 등 한자어 표기에만 나타나는데, 한자어가 한글 표기이든 한자 표기이든 관계없이 분철을 하고 있다. 한글 표기만을 들면 다음과 같다.

12) () 안은 현대식으로 분철하여 보인 것이다.

영학을 長興^{ᄃᆞ}니
康津에 상고션은
井邑에 천막법은

三台六卿은 順天심이요
金溝에 금을이러
엇씨^{ᄃᆞ} ᄃᆞ 방역직이

3) 과도 분철

호남가 가사 표기에는 분철하지 않을 부분을 분철한 과도 분철이 상당히 나타난다.

이안이 龍安處며(←이 아니 龍安處며)
이촌은 茂朱^{ᄃᆞ}고 (←이초(異草)는 茂朱^{ᄃᆞ}고)¹³⁾
務安을 일스문이(←務安을 일스므니)¹⁴⁾
 禮도 ᄃᆞ 건이와(← 禮도 ᄃᆞ 거니와)
扶安國家 이안인야 (←扶安國家 이아니냐)
南平樓에 꼬썩신이(←南平樓에 꾀웃이니)
질거할야(질거하라)

위에서 “이안이”는 ‘이 아니’를, “이촌은”은 ‘이초(異草)는’을, “일스문이”는 ‘일스무니’를, “ᄃᆞ 건이와”는 ‘ᄃᆞ 거니와’를, “이안인야”는 ‘이 아니냐’를, “꼬썩신이”는 ‘꾀웃이니’로 나타날 부분인데, 과도하게 분철한 것이다. 모두 ‘ㄴ’을 분철하고 있다. ‘ㄴ’ 다음에서 과도 분철하는 모습은 근대 국어 표기법에 흔히 나타나는 모습인데, 호남가 또한 이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분철 표기법이 정착하기 직전, 분철 표기에 저항하는 보수적 표기에서 비롯한 과도기 단계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

4) 중철

호남가 가사 표기에는 중철 표기도 나타나는데, 이는 연철과 분철이 겹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중철은 형태를 밝혀 적으면서 이어나는 소리 값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어서 형태를 밝힌 부분의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을 거듭해서 두 번 적은 것이다. 그래서 중철인 것이다. 중철 표기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綾州에 불근썩션

礪山石에 칼를가라

위에서 “불근썩션”은 한 구절에 연철과 중철이 섞여 있는 표기이다. 뒷부분의 형태를 밝혀 적기 위해서는 ‘썩은’으로 적어야 할 곳으로 보이는데, 이의 중철 표기인 ‘썩슨’을 방

13) 이초(異草): 다른 풀. 현재 임방울 창을 비롯하여 부르고 있는 단가에서는 기초(奇草)로 나옴.

14) “일스문이”는 분철한다면 ‘일스무니’가 될 것이다.

언의 영향으로 ‘꽃션(<-꽃션)’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칼를가라”의 “칼를”은 “카를”에서 “칼을”로 넘어가는 도중 단계에서 중철한 것으로 보인다.¹⁵⁾

중철 표기는 ‘스, 르’처럼 [전방성] 자음 자모 경우에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철 표기는 “꽃션”, “칼를”처럼 형태소 경계뿐만 아니라 아래에 보이는 “빗쳐”, “엇썌흔”처럼 한 형태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寶城에 빗쳐잇고

엇썌흔 방역각이

이는 중철 표기가 한 형태소 안에서도 가능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철 표기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려는 태도, 곧 형태를 밝혀 적으려는 태도와 기존 연철하던 태도가 겹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 치찰음(ㅅ, ㅈ, ㅊ) 뒤 이중 모음 표기

호남가 가사 표기에는 ㅅ, ㅈ, ㅊ 뒤 반모음 ‘ㅣ’가 상당히 나타난다. 곧 치찰음 ‘ㅅ, ㅈ, ㅊ’ 뒤에서 ‘ㄷ, ㅌ, ㄱ’가 단모음화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난다.

海南의로 건네올제
泰仁 ㅎ 신 우리선군[성군]
萬丈雲峰 뇌피쇼스
서일은 靈光이라
康津에 상고선은
남세인심 淳昌 ㅎ 니
興德 ㅎ 기 심썌 ㅎ 니

寶城에 빗쳐잇고
高敵城에 홀노안저
綾州에 불근꽃션
昌平 ㅎ 죠흔世上
井邑에 천딕법은
谷城에 무친선비

위에서 “우리선군[성군], 불근꽃션, 서일은, 죠흔世上, 상고선은, 무친선비, 심썌 ㅎ 니”는 ‘우리 선군[성군], 붉은 꽃언, 서일은, 좋은 世上, 상고선은, 문힌 선배, 심썌하니’(방언 고려)로 변하기 바로 전 단계의 표기이다.

단모음화한 것도 아래 든 것처럼 셋 나타난다.

이촌은 茂朱 ㅎ 고
長城을 멀리싸고

싸노니 金堤로다

곧 치찰음 ㅅ, ㅈ, ㅊ 다음에서 단모음화를 확인할 수 없는 다음 용례를 제외하고는

15) “꽃션, 칼를”은 현실 발음(중음)을 반영한 표기일 가능성도 있다.

13/16(81.3%)이 비단모음화한 표기를 보이고 있다. 단모음화한 것은 셋뿐이지만, 치찰음 ㅅ, ㅆ, ㅈ 다음의 단모음화를 말해 준다. 비단모음화한 표기는 표기의 보수성에 의한 것인지 방언을 반영한 표기인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三台六卿은 順天심이요
務安을 일스문이
南平樓에 꼬썩신이

가지 ㄹ ㄹ [가지] 玉果로다
光陽春氣 ㅅ로옴다
놀고가귀를 질거할야

6) ㄴ~ㄹ 혼기

호남가 가사 표기에는 ‘ㄴ~ㄹ’ 혼기가 나타나고 있다.

靈岩에 둘러잇고

高敞城에 홀노안저

‘둘러잇고’로 표기할 부분이 “둘러잇고”로, ‘홀로안저’로 표기할 부분이 “홀노안저”로 나타난다. 모음 사이에서 ‘ㄹㄹ’을 ‘ㄴㄴ’으로 표기하는 것은 손희하(2011b: 241)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 시기의 표기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태도인데, 이는 유음화에 따른 과도 교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7) ‘ㄱ>기’의 과도 표기

興德 ㅎ기 심썩 ㅎ니

놀고가귀를 질거할야

호남가 가사 표기에는 ‘기’로 표기할 부분을 ‘ㄱ’로 표기한 것이 나타난다. 19세기말 ‘꺠차>기차(汽車)’에서 보는 것처럼 ‘꺠>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꺠’는 이의 과도 교정 표기로 보인다. 이는 변화하는 표기에 저항하는 보수적 표기에서 비롯한 과도기 단계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

8) ㅡ>ㄴ

호남가 가사 표기에는 ‘ㅡ’로 표기할 부분을 ‘ㄴ’로 표기한 것이 나타난다.

海南의로 건네올제

“海南의로”는 “海南으로”로 나타나야 부분인데, “海南의로”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의사’를 ‘으사’로 발음하는 방언에서 원래 ‘으’를 ‘의’로 잘못 생각하여 과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곧 이는 ‘의’를 ‘으’로 발음하는 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9) .

호남가 가사 표기에는 ‘.’의 변화에 따른 과도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南平樓에 꼬쫓신이

全州百姓 거나리고

“꼬쫓신이”는 ‘꼬싸신이’를, “거나리고”는 ‘거느리고’를 과도 표기한 것인데, 특히 “거나리고”는 ‘거느리고’가 ‘거느리고’에서 변한 것으로 착각하여 ‘거느리고’의 후대형으로 보이는 “거나리고”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방언

1) 전설 모음화

호남가는 가사 전체 구절이 그리 길지 않아서 반영하고 있는 방언의 모든 모습을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가사에 들어나는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현상은 발음을 할 때에 입을 덜 벌리는 발음 경제화 현상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전설 모음화가 돋보인다. 호남가 가사에서는 ‘ㅏ’를 ‘ㅑ(ㅕ)’로, ‘ㅓ’를 ‘ㅖ’로 ‘ㅗ’를 ‘ㅛ’로 발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光州故鄕 바리보니(←바라보니)

海南의로 건네올제(←건너올제)

羅州風景 바리보니(←바라보니)

萬丈雲峰 뇌피쇼스(←노피쇼스)

원갓花草 茂長헝미(←온갓花草)

珍島로 건네온다(←건너온다)

‘ㅡ’를 ‘ㅣ’로 발음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南平樓에 꼬쫓신이

놀고가기를 질거할야

“꼬쫓신이”는 ‘꼬쫓슨이(꽃웃으니)’에서, “질거할야”는 ‘즐거할야’에서 전설 모음화한 것이다. 모두 치찰음 다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후설 모음을 전설 모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이다. 이들은 모두 입을 덜 벌리는 태도인데, 서남 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 이처럼 입을 덜 벌리는 현상은 노년층의 언어에서 더욱 나타나는데, 호남가도

만년의 신재효가 정리한 단가 사설이라는 점에서 나이든 이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고부 모음화

전설 모음화 현상은 입을 덜 벌리려는 태도인데, 다음 보기 또한 이러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高敵城에 홀노안저

南原의 봄이들어

위에 든 “안저”는 ‘안자(앉아)’(ㄴ>ㅈ)가, “南原의”는 ‘南原에’(ㄴ>ㄹ)가 고부 모음화한 것을 반영하여 적고 있다. 이 또한 전설 모음화와 함께 발음을 할 때에 힘을 덜 들이려는 태도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호남가 사설에는 고부 모음화의 과도 표기도 나타난다.

綾州에 불근췌션

“췌션”은 ‘췌슨’(→ㅈ)을 과도 표기한 것으로 이는 고부 모음화 현상을 반증한다.

전설 모음화, 고부 모음화 현상은 서남 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또 나이 든 사람 언어의 특징이기도 하다. 나이 든 사람은 가능하면 말을 할 때에 기운을 절약하려는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입을 덜 벌리려는 태도인데, 서남 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 이 현상은 호남가를 만년의 신재효가 정리한 단가 사설이라는 점에서 나이든 이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 구개음화

호남가 가사 표기에는 ‘ㅣ’ 모음 앞에서 ‘ㅌ’을 ‘ㅊ’으로 발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谷城에 무친션ㅌ

또 ‘ㅎ’이 ‘ㅣ’ 모음 앞에서 ‘ㅅ’으로 변한다.

興德ㅎ긔 심췌ㅎ니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 방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말을 할 때에 혀와 입을 덜 움직여 기운을 절약하려는 태도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밖에 호남가 가사 표기에 나타나는 언어학적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4) 음절 축약

싸노니 金堤로다

‘쌍놓으니’가 “싸노니”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 음절을 축약하여 한 음절로 발음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는 방언의 반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음절 축약 현상은 ‘가조다(가져오다), 딸:다(따르다)’처럼 서남 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5) ㅎ탈락

싸노니 金堤로다

“나안테(나한테), 저나(전화)”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음 사이나 콧소리 뒤에서 ‘ㅎ’이 약화하거나 탈락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도 이 지역 방언의 특징이다

6) 원순 모음화

구부 ː ː [구부] 萬頃이요

務安을 일스문이(←일스므니)

호남가 가사에는 “구부 ː ː [구부], 일스문이(←일스므니)”처럼 형태소 경계에서 원순모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순음 ‘ㅁ, ㅂ’ 아래에서 나타나는데,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원순모음화 현상은 비어두 음절에서 나타난다. 이는 ‘ㅡ’가 ‘ㅁ, ㅂ’의 양순성에 동화한 것으로, 손희하(2011a: 193)에 보이는 것처럼 비슷한 시기의 해당 지역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방언의 반영으로 보이는데, 현대 서남 방언에서 “거:무(거미), 땅뿌닥(땅바닥)”처럼 흔히 볼 수 있다.¹⁶⁾

16) 보기는 손희하(2022)에서 가져온 것이다. 자세한 보기는 손희하(2022)를 참조하길 바람.

“구부구부”는 『우리말샘』에도 전남 방언으로 나와 있다.

구부-구부 ‘굽이굽이’의 방언(전남). (『우리말샘』)

7) 특이 어휘

(1) 마닥

호남가 가사에 나타난 특이 방언으로는 ‘마닥’을 들 수 있다.

곳ᄃ [곳]마닥 錦山이라

‘마닥’은 국립국어원이 간행한 전자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마다’의 전남 방언으로 나와 있고, 『전남방언사전』에는 ‘담양순천’ 방언으로 나와 있으며, 『전라북도 방언사전』에도 실려 있다. 『구비문학대계』에도 ‘군산·옥구, 정주·정읍’의 방언이 용례에 나와 있다.

마닥 「001」 「조사」 「방언」 ‘마다[((체언 뒤에 붙어))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의 방언(전남). (『우리말샘』)

마닥 𠵿 마다. [담양순천] (『전남방언사전』)

마닥 𠵿 [대응어] 마다.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𠵿 네, 그 여자가 시웅계 칼을 켜고서는, “그놈을 칼 {임자마닥} 다 와서 하나씩 주워 가라. 니 칼을 찾아가거라.” <구비문학대계, 군산·옥구>

𠵿 너 거 좀 잘 봐라. 아 근게 아 이놈이 {날마닥} 가서는 지왓장으 새 못 안게 ‘어이 어이’ 그 종손이 쫓고 있단 말여. <구비문학대계, 정주·정읍> (『전라북도 방언사전』, <[http://ebook.jeonbuk.go.kr/Viewer/FW3VC96JA5ZQ\(2022.10.9.검색\)](http://ebook.jeonbuk.go.kr/Viewer/FW3VC96JA5ZQ(2022.10.9.검색))>).

(2) 싸노니

싸노니 金堤로다

“싸노니”는 ‘쌍노니’에서 ‘ㅎ’이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는 어근에 어근을 바로 연결하는 중세 국어 조어법의 흔적을 보여 주는 보기가 될 것이다.

(3) 거나리다

全州百姓 거나리고

“거나리고”는 ‘거느리고’에서 ‘느’가 ‘나’로 과도하게 바뀐 표기이다. 『우리말샘』에 ‘거느리다’의 전남 방언으로 나와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호남가(청계본)의 언어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호남가 이본 중 하나인 청계본의 판본을 먼저 살펴본 다음, 여기에 나오는 호남가 가사의 표기법을 살펴보고, 가사에 나타난 언어의 특징과 특이 방언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맺음말로 삼고자 한다.

‘호남가(청계본)’은 신재효(1812-1884) 판소리 사설본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으로 ‘호남가’ 사설의 하나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로, 현재는 고창판소리박물관이 위탁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다. 1932년에 소장자로 알려진 전북 고창군 고수면 평지리 청계의 박현옥 씨의 부친 박경립(1864-1932) 씨가 1911년(신해)에 필사한 필사본이다. 크기는 가로가 18.2센티미터, 세로가 12.2-12.3센티미터이며, 4침 선장, 지질은 한지, 1면 10줄, 1줄은 15자 내외, 국한문을 혼용한 세로글씨체로 되어 있으며, 끊어 읽는 부분에 적색 화두점을 찍어 놓았다. 책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다. 앞표지 다음 장 앞면에 “庚戌六月日”, “要鑑記”라고 써 놓았으며, “朴桐林信”, “朴處五信”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앞뒤 표지 안쪽면에는 약방문을 적어 놓았다.

“成造歌라” 본문이 끝나는 제9장 앞면에 “歲在 辛亥 杞洞 新抄”, “成造歌 終抄”라고 적혀 있고, 동근 장서인 “朴處五信”이 찍혀 있는데, “辛亥”는 필사 시기로 보인다. ‘호남가’는 제목 1줄을 포함하여 30줄을 3면에 걸쳐 필사하여 놓았다. 1줄에 6-17자를 적었는데, 15자가 17줄로 압도적이다.

호남가 가사 표기에는 수정한 곳이 여러 곳 있으며, 오자로 보이는 부분도 보인다. 이는 다른 이본을 필사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에 청계본은 신재효가 직접 쓴 사설을 베껴거나 신재효가 직접 쓴 사설을 베낀 다른 이본을 베낀 것으로 보인다.

호남가 가사 표기는 전반적으로는 현대식 표기와는 달리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한 음절씩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연철, 분철, 중철, 과도 분철 표기가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근대 국어 표기법에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분철 표기법이 정착하기 직전, 분철 표기에 저항하는 보수적 표기에서 비롯한 과도기 단계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다. 또 호남가 가사 표기에는 ‘ㅅ, ㅈ, ㅊ’ 뒤 반모음 ‘ㅣ’가 상당히 나타난다. ‘ㄴ~ㄹ’ 혼기도 나타나며, ‘기’ > ‘괴’로 표기한 것, ‘->ㄴ’ 과도 표기, ‘·’의 변화에 따른 과도 표기 등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 과도기 서남 방언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호남가 가사에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현상은 발음을 할 때에 입을 덜 벌리는 발음 경제화 현상이다. 곧 전설 모음화, 고부 모음화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개음화, 음절 축약, ‘ㅎ’ 탈락, 원순모음화 등도 나타난다. 특히 방언으로는 ‘마닥, 싸노니, 거나리고’ 등을 들 수 있다. 국어학적으로 대체로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 과도기 서남 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호남가 청계본에 대한 최초의 국어학적 연구라는 점과 당시의 언어 양상과 서남 방언 자료를 고찰한 점에 의의가 있다. 국어사와 방언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한영(1969),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 연구, **영인 신재효 판소리 전집**, 영인판,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자료총서**, 5: 1-29,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korean.go.kr/main>(2022. 10. 9. 검색)>.
- 김종철(2021), 신재효 판소리 사설 ‘청계본(淸溪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95: 133-175.
- 손희하(2011a), ‘戊戌孟夏西內新刊’ 『千字文』 研究, **한중인문학연구**, 34: 175-200.
- 손희하(2011b), 乙巳季冬完山新刊 『千字文』 연구, **국어사연구**, 12: 229-267.
- 손희하(2022), 담양의 언어습관, **담양군사, 3(문화와 문화재)**: 155-201.
-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1969), **영인 신재효 판소리 전집** 영인판,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자료총서**, 5,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 임방울 창 호남가, 국악원(1956).
- 임방울 창 호남가, 오케(1933).
- 임방울 창 호남가, 콜럼비아(1929).
- 전라북도(2018), **전라북도 방언사전**, <<http://ebook.jeonbuk.go.kr/Viewer/FW3VC96JA5Z> Q(2022. 10. 9. 검색)>.
- “호남가” 가람본, 서울대학교 가람문고 소장, 필사본. 이병기 편, 『신오위장본집』; 영인판, 고창판소리박물관(2023), **단가 가사 영인 교주본**.
- “호남가” 새터본, 고창판소리박물관 소장, 필사본. 강한영 편, 『신오위장가사집』; 영인판, 고창판소리박물관(2023), **단가 가사 영인 교주본**.
- “호남가” 청계본(淸溪本), 고창판소리박물관 소장, 필사본, 박경립 편(1911), **성조가(成造歌)**.

【국문초록】

호남가(청계본)의 국어학적 연구

손 희 하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호남가(청계본)에 대하여 국어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문헌학적 분석을 토대로 진행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다른 주요 이본들과도 비교 대조한다.

연구 내용: 호남가(청계본)의 판본, 표기, 방언 등 언어의 특징과 특이 방언을 분석하고 고찰한 것이다.

결론 및 제언: 호남가(청계본)는 고창인 박경림 씨가 1911년에 필사한 필사본이다. 연철, 분철, 중철, 과도 분철 표기가 나타난다. ‘ㅅ, ㅈ, ㅊ’ 뒤 반모음 ‘ㅣ’가 상당히 나타나는 등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 과도기 서남 방언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기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음운 현상은 전설 모음화, 고부 모음화 등이며, 구개음화, 음절 축약, ‘ㅎ’ 탈락, 원순모음화 등도 나타난다. 대체로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 과도기 서남 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호남가(청계본)에 대한 최초의 국어학적 연구라는 점, 당시의 언어 양상과 서남 방언 자료를 고찰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국어사와 방언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핵심어: 호남가(청계본), 단가, 사설, 신재효, 박경림